

2017년 세상의 모든 시학

도시와 포엠 : 포엠시티를 꿈꾸다



□참가대상 : 부산대학교 구성원 누구나 가능
□강의장소 : 부산대 새벽별도서관 1층, 오디토리움
□강의일시 : 매월(학기중) 4주차 금요일 오후 3시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2015_

- 제1강.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현대시
김종기(불어교육과)
- 제2강. 에른스트 안홀의 구체시와 독일의 구체시학
이상금(국어교육과)
- 제3강. 신시(新詩): 시로 만나는 명상과 깨침의 세계
이진오(예술문화영상학과)
- 제4강. 엘리엇의 <일프레드 프루프락의 연가>의 시적 기법
김혜영(교양교육원)
- 제5강. 17자의 정형사-하이카(俳句)의 세계
김림숙(일어일문학과)
- 제6강. 두보의 <곡간>과 마음 읽기
김승룡(한문학과)
- 제7강. 은유와 사랑 - 한국시 특강 -
손택수(시인)

2016_

- 제8강. 문화적 대응으로서의 한국 현대시의 이해와 오늘
권학우(문학평론가)
- 제9강. 우주의 시
김상욱(물리교육과)
- 제10강. 순간에 대하여, 혹은 없는 것에 대하여
강선화(예술문화영상학부)
- 제11강. 중앙아시아 구비서사시 마나스
왕민홍(노문학과)
- 제12강. 시는 감동(나)이다
이상재(한의학전문대학원)
- 제13강. 소리의 절주와 조화, 시를 읽는 열쇠
류영희(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
- 제14강. 지금 나의 시가 발추았어도
오정진(법학전문대학원)

2017_

- 제15강. 3. 24 (금) 파리와 보들레르
김종기(불어교육과)
- 제16강. 4. 28 (금) 원형과 릴케
서은주(독어독문학과)
- 제17강. 5. 26 (금) 송도와 황진이
김승룡(한문학과)
- 제18강. 9. 29 (금) 통영과 백석
이순욱(국어교육과)
- 제19강. 10. 27 (금) 교토와 이즈미시키투
노선숙(일어일문학과)
- 제20강. 11. 24 (금) 상트 페테르부르크와 푸쉬킨
양영란(노어노문학과)
- 제21강. 12. 15 (금) 시인특강: 발트국의 낯선 아름다움을 찾아서
이상금(국어교육과)

우리는 시대와 지역에 매이지 않는 시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되 지금-여기의 역사성 또한 잊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공동주관 : Poetica in PNU,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효원 도서관

2017. 9. 29. Vol. 40



부산대학교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효원 도서관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Newsletter **도서관소식지**

CONTENTS

- 04** **도서관 200% 이용하기**
도서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 08** **책, 감동을 나누다** 책으로 채우는 감동 더하기
- 10** **교수의 서재** 창의력을 샘솟게 하는 우물
- 12** **아름다운 인터뷰** <세상의 모든 시학> 함께 해요
- 14** **책과 문화** 여행의 취향, 여행의 방식
- 16** **통계로 보는 도서관** 도서관의 학습공간 200% 활용하기
- 18** **즐기는 책세상** You Only Live Once
- 20** **문화공간** 당신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영화의 매력 속으로
도서관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 22** **시선집중**
- 23** **도서관 후원**

발행처 부산대학교도서관 **발행인** 이상금 **발행일** 2017. 9. 29.
편집 김송아, 박선화, 최민영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전화 051-510-1810 **팩스** 051-513-9733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홈페이지 <http://lib.pusan.ac.kr> **디자인** 디자인웍스 051-248-1513

<효원 in 도서관>은 도서관 블로그(<http://lib.pusan.ac.kr/pnublog>)에서도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상과대학 기증자 명단

김보두(무역 70), 권오준(무역 72), 양일상(경영 74)
 전석현(무역 74), 옥상곤(경영 74), 안광수(무역 74)
 박영운(무역 74), 박준희(경제 89)



“우리 도서관에 큰 시계가 생겼어요”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대학구성원의 자긍심 고취와 대학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형 옥외 노출시계를 중앙도서관과 새벽별도서관에 설치하였습니다.

부산대학교 신정식 동문회장(화학기계공학 74)과 상과대학총동문회(우측명단 참고)에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설치된 시계는 가로 4.5m × 세로 4.5m (중앙도서관), 가로 3.5m × 세로 3.5m (새벽별도서관) 크기로 밤에도 잘 볼 수 있는 LED 전등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도서관의 옥외 시계는 교내 구성원은 물론 졸업생들에게도 새로운 추억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모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서관이 새로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이름이 달라졌습니다. 제1도서관, 제2도서관으로 불리던 부산 캠퍼스의 도서관은 2017년 7월부터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 예전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네요. (저도 아직 입에 붙지 않아서 가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답니다^^;) 도서관 이름이 변경되면서 도서관 이름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인지 등에 대해 이용자들의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제1도서관을 연구도서관으로, 제2도서관을 중앙도서관으로 불려오던 이용자들에게 명칭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번 소식지에서는 도서관 이름이 바뀌게 된 이유와 함께 도서관 이름의 역사 및 변경절차를 살펴보고 새로운 이름에 대한 애정을 가져보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합니다.

도서관 이름이 정확히 어떻게 바뀌었나요?



왜 중앙도서관, 새벽별도서관인가요?

중앙도서관

(구)제1도서관은 도서관의 모든 행정과 기능, 서비스를 맡고 있는 기관으로, 도서관 고유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중앙도서관'으로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도서관 전체 인원의 85%가 근무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에 중앙도서관으로의 명칭 변경 요청이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

새벽별도서관

1946년 부산대학교의 개교와 함께 개관한 부산대학교 도서관은 초대 윤인구 총장의 건학이념을 실천할 수 있는 터전 '효원(曉原)'의 순수한 우리말인 '새벽별'로 이름을 변경함으로써 부산대의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합니다. 새벽별은 (구)제2도서관 주변 '10·16부마민중항쟁탑'을 중심으로 민주열사들의 기념비 등이 다수 있어 민주화의 상징성을 의미함과 동시에 24시간 불빛이 꺼지지 않는 열람실을 통해 새벽까지 빛나는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추후 새벽별도서관 주변으로 민주공원 및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도서관 명칭을 '새벽별도서관'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이 새로운 이름을 가지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2016년 9월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진행되었던 설문조사 항목 중 '도서관 명칭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결과에서 교수 집단은 3.75, 직원 집단은 3.30, 대학원생은 3.22, 학부생은 2.85로 나타났습니다.(5점 만점) 이후 도서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민주동문회 및 총학생회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본부 캠퍼스기획단에 명칭변경을 신청하였고, 학내의 전 기관에 공문발송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교무회의에 보고하여 2017년 6월 20일 통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서관이 **중앙도서관과 새벽별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Make the best use of the Library. The Library has new names!

The name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hanged. The library of the Busan Campus, which was called the Library 1 and Library 2, will have new names from July 2017 to the Central Library and SaeByeokBeol Library. I'm not familiar with the new name yet, so I make mistake called old name. There was a lot of questions from users about the change of library name, why library name was changed,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me and so on. In this newsletter,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library names as well as the reason for the library name change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me, to prepare for the confusion of the new name of the library to the users who called the Library 1, Library 2 as Research Library, Central Library.

What is the new name of the library?



Why Central, SaeByeokBeol?

Central Library

The Library 1 (now, Central Library) is responsible for all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and services of the library. It functions as a 'central library' and is also where 85% of the total number of people in the library work. There has been a constant call for a change of name to the Central Library.

Sae Byeok Beol Library

The Pusan National University Library, which opened with the opening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1946, changed its name to 'SaeByeokBeol', the pure Korean language of 'Hyowon' to inherit the tradition and spiri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SaeByeokBeol' is symbolic of democratization along with the monuments of the democratic chiefs around the Library 2 with the '10 · 16 Burma People's Uprising Tower' as the central figure. And it also means a library that shines through dawn through a reading room that does not lose its light 24 hours a day. In the future, we will establish a democratic park and cultural complex near the Library 2, and select the appropriate library name as 'SaeByeokBeol' Library.

What process does the library take to get a new name?

Do you remember the library's satisfaction survey in September 2016? Among the questionnaires that were conducted at the time, the results of the "need to change library name" were 3.75 for the professors group, 3.30 for the employee group, 3.22 for graduate students, and 2.85 for undergraduate students.(5 out of 5) After consultation with the library staff and committee for library management, we completed consultations with the Democratic Alumni Association and the Students' Union. And applied for a change of name to the Campus Planning Department of the headquarters, and sent an official letter to all the institutions on campus to collect their opinions. After that, reported to the Meeting of the Board of Education and passed on June 20, 2017. This led to a new name for the library: **the Central Library and the SaeByeokBeol Library.**

도서관은 그동안 어떤 이름을 가졌나요?



1946년 개관 이후
도서관은 70년의 역사 동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도서관 명칭의 연혁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1946년 5월	1956년 9월	1966년 5월
도서관 명칭	중앙도서관 (구)제1도서관	X	X	X
	새벽별도서관 (구)제2도서관	X	X	X
비고		부산대학교 개교 및 부산대학교 도서관 개관	 효원도서관(현 박물관 건물) 신축 개관	 중앙도서관 (구 자율도서관, 현 건설관) 신축 개관

1980년 9월	1994년 9월	1999년 1월	2011년 8월	2017년 6월
X	연구도서관	제1도서관	제1도서관	중앙도서관
중앙도서관	학습도서관	제2도서관	제2도서관	새벽별도서관
 중앙도서관(제2도서관) 신축 • 중앙도서관으로 불리던 (구)자율도서관은 구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후 보존서고로 사용되었으며, 2008년 10월 건설관 재건축사업으로 철거됨	 연구도서관(제1도서관) 신축 • 제1도서관은 외국서를 집중적으로배치한 연구도서관으로, 제2도서관은 열람실과 국내서 및 준귀중도서(KDCP)를 중심으로 하는 학습도서관으로 운영 • 중앙도서관의 역할은 연구도서관에서 수행	주제도서관으로 운영 • 제1도서관에 예체능/과학기술자료 비치 • 제2도서관에 어문학/인문 사회과학자료 비치 • 중앙도서관의 역할은 제1도서관에서 수행	제1도서관 증축 개관 • 제2도서관의 모든 장서를 제1도서관으로 이전 • 제2도서관은 열람실과 보존서고로서의 역할만 수행 • 명칭변경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학내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교무회의 보고를 거쳐 명칭변경이 완료됨

History of Library Names

Since opening in 1946, the library has been called by many names throughout 70-year history. The history of library names is as follows.

Month / Year		May, 1946	September, 1956	May, 1966
Library Name	Central Library (Library 1)	X	X	X
	SaeByeokBeol Library (Library 2)	X	X	X
비고		Pusan National University opened with the library	 The Hyowon Library opened(current Museum)	 The Central Library built and opened (previously the Jayul Library, Current Building of Construction)

September, 1980	September, 1994	January, 1999	August, 2011	June, 2017
X	Research Library	Library 1	Library 1	Central Library
Central Library	Learning Library	Library 2	Library 2	SaeByeokBeol Library
 The Central Library(Library 2) built and opened • The Jayul Library, formerly called the Central Library used as a Depository Library. It was demolished in October 2008 as a construction reconstruction project.	 The Research Library(Library 1) built and opened • The Library 1 is a research library focused on foreign books. The Library 2 is operated as a learning library centering on reading rooms and domestic books and semi-precious books. • The role of the central library is carried out in the research library.	Subject Libraries system launched • Arts/Science and technology materials in Library 1 • Literature/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materials in Library 2 • The role of the central library is carried out in the Library 1.	The Library 1 expanded and re-opened • Move all books of the Library 2 to the Library 1 • The Library 2 serves only as reading room and depository library. • Discussions begin in earnest about the change of name	The name change is completed after the opinions of the members of the campus are collected and reported by the committee.

2017년에도
계속됩니다

책으로 채우는 감동 더하기



내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을 친구나
선후배와 함께 나누는 건 어떨까요?
2017년에도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 공모는 계속됩니다.
달콤한 휴식같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마음 새뜻으로 시작하는 2학기에
책으로 채우는 감동을 더해보세요.
더 즐겁고 보다 알찬 학교생활을
위해 도서관에서 준비한 2017년도
1학기의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도서 50선을 소개합니다.

총류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총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유시민 작가의 글 전개 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요약과 발췌를 통해 논리적으로 글을 전개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유시민 작가가 20대 청춘일 때 느낀 생각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는 청춘의 독서 한권을 읽음으로써 여러 권의 고전들이 던져주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자신만의 철학, 사상을 정립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청춘에 할 수 있는 가장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장성우(식품자원경제학과)

- 01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영성 | 스마트북스 | 2015 **정성현**(수학교육과)
- 02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김대식 | 민음사 | 2017 **백동현**(독어독문학과)
- 03 청춘의 독서 유시민 | 웅진지식하우스 | 2009 **장성우**(식품자원경제학과)

철학
이 책은 다양한 교훈들을 주는 에피소드가 알차게 채워져 있다. 작가가 치료약처럼 건네어 주는 여러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위로를 받는 부분도 있고, 뜨끔하게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이가 가는 부분들도 있고, 새로운 시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다. 또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얻는 포인트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다. 그러나 포괄적인 주제는 삶의 원동력을 찾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황수민(약학과)

- 04 미움받을 용기 고가 후미타케 | 인플루엔셜 | 2014 **송상현**(경영학과)
- 05 서천석의 마음 읽는 시간 서천석 | 김영사 | 2013 **황수민**(약학과)
- 06 엘리트 마인드 스탠 비침 | 비즈퍼이퍼 | 2017 **김동우**(대기환경학과)
- 07 자존감 아무석 | 비전과 리더십 | 2010 **설보연**(나노융합공학과)

종교
치열함이란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 한 스님의 일생이 담긴 책이다. 설명 없이 튀어나오는 불교 용어들이 이해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긴 하지만 맥락적으로 읽다 보면 크게 무리는 없이 넘어가는 것 같다. 스님의 죽음 이후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성철 스님의 일생을 소설처럼 서술해 놓았다. 꽤나 길지만 꾸준하게 잔잔히 흥미진진하달까, 생각 외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최성진(조경학과)

- 08 성철 평전 김택근 | 모과나무 | 2017 **최성진**(조경학과)
- 09 탈무드 사이니아 | 서교출판사 | 2016 **정우형**(항공우주공학과)

사회과학
많은 사람들이 체르노빌 원전사고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당신은 체르노빌 사고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과연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일어난 이후 체르노빌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 책은 사고 이후 사고 그 자체에만 집중되었던 사람들의 시선을 넘어 그 사고에 의하여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추천사의 제목에 있는 체르노빌레츠는 바로 작가가 수없이 많은 인터뷰를 통해 담아 낸 목소리의 주인, 즉 체르노빌 사람들을 의미한다. 전현준(재료공학부)

- 10 19금 경제학 조준현 | 인물과사상사 | 2009 **김혜민**(항공우주공학과)
- 11 19세기의 마르크스 자본론 카를 마르크스 | 스타북스 | 2015 **이유정**(약학과)
- 12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은수연 | 이매진 | 2012 **최자우**(교육학과)
- 13 대한민국의 시험 이해정 | 다산4.0 | 2017 **김동우**(경제학부)
- 14 맨박스(MAN BOX) 토니 포터 | 한빛비즈 | 2016 **정유진**(정치외교학과)
- 15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선대인 | 다산북스 | 2017 **차수라**(불어불문학과)
- 16 엔트로피 제너미 리프킨 | 세종연구원 | 2015 **오석동**(식품공학과)
- 17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안나 아렌트 | 한길사 | 2006 **김다혜**(문헌정보학과)
- 18 자연에서 배우는 형색 기술 이인식 | 김영사 | 2013 **박민지**(간호학과)
- 19 지금 다시, 한법 처방식 외 | 로고폴리스 | 2016 **신난**(문헌정보학과)
- 20 체르노빌의 목소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 | 새일 | 2011 **전현준**(재료공학부)
- 21 클라우스 슈밥의 4차 산업혁명 클라우스 슈밥 | 새로운 현재 | 2016 **김태영**(예술문화영상학과)
- 22 편견 아그네스 헬러 | 이문과 실천 | 2015 **예정화**(대기환경학과)

자연과학 & 기술과학
책에서 다루는 7가지내용(자료집계, 정보추정, 기능도, 상호 비교, 회귀 등)은 통계학에서 응용된 내용보다는 기본적인 내용에 속한다. 하지만 결코 가벼운 주제의 내용은 아니다. 저자도 통계학의 내공이 상당한지 난이도 조절을 상당히 잘 한 것 같다. 학교에서 수업만 들었다면 단순히 공식암기로 끝났을 내용들을 이 책에서는 주제가 꼬리를 물 듯 계속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이준영(정보컴퓨터공학부)

- 23 통계학을 떠받치는 일곱기둥 이야기 스티븐 스티글 | 프리렉 | 2016 **이준영**(정보컴퓨터공학부)
- 24 날, 자꾸만 무너지는 나를 위해 강레오 | 예담 | 2015 **조재호**(전기공학과)
- 25 미스터 나이트게일 문광기 | 김영사 | 2014 **황현지**(간호학과)
- 26 사치의 나라 렉서리 코리아 김난도 | 미래의창 | 2007 **김현지**(정치외교학과)
- 27 스무살, 절대 지지 않기를 이지성 | 차이정원 | 2017 **이연주**(건설융합학부)
- 28 스티브 잡스 월터 아이작슨 | 민음사 | 2011 **오지윤**(건설융합학부)

예술
「우리 궁궐 이야기는 국내 최초로 궁궐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홍순민 교수의 역작이다.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 은축이나 지인 여건을 감안할 때 1999년이라는 출판년도는 경이롭기 그지없다. 아울러 지은이가 직접 현장에서 체득하고 취득한 감상의 기록, 전문적인 사적에 대한 내용, 삽화와 도면 등을 이유로 이 책은 이 분야 도서 중 손에 꼽히는 발군의 궁궐 전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정우(역사교육과)

- 29 우리 궁궐 이야기 홍순민 | 청년사 | 1999 **박정우**(역사교육과)

문학
쓰기는 읽기와 다르다. 읽기는 어떤 단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몇 문장 정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맥락을 파악해 어떤 글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쓰기는 그렇지 않다. 쓸 수 없는 것은 화면 속 여백으로 나타날 뿐이다. 이번에 읽은 「쓰기의 말들」도 여전히 글을 잘 쓰지 않는 와중에 읽은 여러 글쓰기 책 중 하나다. 쓰기에 대한 기술뿐 아니라 쓰기를 불러 일으키는 여러 말들을 담은 책이다. 김동우(경제학부)

- 30 강남웅 황석영 | 창비 | 2010 **이동후**(사학과)
- 31 구해줘 기욤 뭌소 | 밝은세상 | 2012 **허설혜**(문헌정보학과)
- 32 김약국의 딸들 박경리 | 을유문화사 | 1962 **채지수**(대기환경학과)
- 33 나는 한 번이라도 뜨거웠을까? 베벌리 나이트 | 내인생의책 | 2011 **우소연**(문헌정보학과)
- 34 다산의 글쓰기 전략 최효준 | 글라이더 | 2016 **김영준**(문헌정보학과)
- 35 달과 6펜스 윌리엄 서머셋 | 삼중당 | 1985 **최종윤**(조경학과)
- 36 더 컬러 퍼플 앨리스 워커 | 한빛문화사 | 2004 **이동후**(사학과)
- 37 새는 날아기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 류시화 | 더숲 | 2017 **김구원**(pre-한의학전문대학원과정)
- 38 세계의 끝 여자친구 김연수 | 문학동네 | 2009 **임현희**(지질환경학과)
- 39 소승 프란츠 카프카 | 문학동네 | 2010 **배다혜**(토목공학과)
- 40 시계태엽오렌지 앤서니 버지스 | 민음사 | 2005 **김지혁**(생명과학과)
- 41 쓰기의 말들 은유 | 유유 | 2016 **김동우**(경제학부)
- 42 우물 밖 여고생 슬구 | 푸른항기 | 2016 **김예지**(대기환경학과)
- 43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은행나무 | 2011 **정세빈**(조경학과)
- 44 정글만리 1, 2, 3 조정래 | 해냄출판사 | 2013 **황제연**(조경학과)
- 45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김수근 | 공간사 | 2006 **김아현**(약학과)
- 46 파리대왕 윌리엄 골딩 | 민음사 | 1990 **이경은**(지질환경과)
- 47 허삼관 매월기 위화 | 푸른숲 | 2007 **김지원**(철학과)

역사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랄 것 없이 한국사라는 과목을 배워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기능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사건들에 대해 배우면서 외우기에 치중하다보니 제대로 된 고찰을 고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자신이 배우는 부분의 사실 여부를 일일이 따지기 보다 별다른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우리가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역사가 알고 보니 왜곡된 것이라면? 「의자왕을 고백하다」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한다. 유민경(교육학과)

- 48 나는 떠났다 그리고 자유를 배웠다 마이케 빈네무트 | 북라이프 | 2015 **이재은**(대기환경학과)
- 49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 김영사 | 2015 **김다환**(조선해양공학과)
- 50 의자왕을 고백하다 이희진 | 기림기획 | 2011 **유민경**(교육학과)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안내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매년 부산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효원인과 함께 읽고 싶은 책' 추천서를 공모합니다.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의 추천도서는 총 466종으로, 추천도서 목록 및 추천의 글은 '책 읽는 대학 홈페이지' (<http://reading.pusan.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창식 고분자공학과 교수

창의력을 섬뿍게 하는 우물

창의력은 다름 아니라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발휘되는 상상력에
그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어 온 것 같다

내 연구실은 책들로 가득한 서가(書架)가 벽 한 면을 온통 차지하고 있는 서재이다. 그 통으로 된 서가의 1단은 서류들을 보관하기 위해 문을 단 서랍장 같은 곳이지만, 2단부터 7단까지는 개방된 공간으로 거기 꽂힌 2천 권이 넘는 책들이 매일 나를 보고 미소 짓는다. 방문객들의 눈길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기도 하다.

3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인 책들이다. 대부분이 전공에 관련된 책들이다. 원래 실험실이 있던 곳이 교수 연구실로 배정된 곳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 대학 대부분의 다른 학과 교수님들의 연구실에 비해서는 크기가 두 배 정도 되기 때문에 더욱 시선을 끄는 서가일 것이다.

인문사회계 교수님들과는 책들이 모이는 과정이 조금 다를 것 같다. 나와 같은 이공계 교수들이 책을 모으는 과정엔 좀 드러내기 멋쩍은 사연들이 있다. 다름 아니라 해적판 책들의 '묻지마' 구입이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지적 재산권이 법제화되기 전의 일이다. 많은 책들이 해외 출판사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무섭게 해적판이 되어 우리를 연구실을 찾아왔다. 인쇄의 질은 물론이고 제본 또한 멋진 양장으로, 원본 보다 더 원본 같은 책들이었다.

해적판 책들을 파는 영업 직원들은 전국의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업체들을 돌아다니며 그

책들을 판매하였다. 게다가 인심 좋게 대부분이 외상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묻지마' 구입이 유행처럼 된 시절이 있었다. 대학에 재직할 세월 만큼 책의 양도 늘어나게 마련이었다. 뿐만 아니라, 방학 때만 되면 학교 인근 서점들은 다음 학기 교수계획표에 따라 해당 학기 교과목들의 교재와 연관된 전공서적 서너 권들을 경쟁적으로 교수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러다보니 35년의 교육 경력만큼 쌓이게 된 책들을 놓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벽면 전체에 고정식 서가를 짜게 된 것이다.

이렇게 모인 책들이 2천여 권에 달한다. 공간 부족으로 대학원생들이 생활하는 실험준비실에도 따로 정리된 책들이 3천여 권 정도 더 놓여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해적판 서적이다 보니 강의 준비 때 도움이 되긴 하지만 사실 책으로서의 가치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나의 서재를 더욱 의미 있게 하는 것은 한쪽 벽면에 통으로 된 서가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놓인 4개의 6단 높이 책꽂이들에 꽂힌 1,000여 권의 문학 책들이다. 고분자과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지만, 수필가로도 활동하는 취미 생활 덕분이다. 나의 수필집들도 서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문학단체들을 통해

거의 매일 우송되어 오는 동료 작가들의 신작 수필집과 시집들이 차곡차곡 그 책꽂이들을 채워가고 있다. 문학 관련 정기간행물들도 예외가 아니다. 문학 관련 정기간행물들은 미안하게도 공간 부족으로 연구실 밖 복도 책꽂이들까지 밀려났다.

사실 이공계 학생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전공 책은 물론이고 전공과 관련 없는 교양서적들은 거의 읽지 않는다. 물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수님들 중에서도 책읽기가 생활화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적지 않다. 어찌 보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 분야이기에 전공 논문들을 읽어야 할 시간조차 모자라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전공에 관련하여 좋은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연구비, 연구 장비, 연구 인력 같은 연구 자원도 물론 중요할 것이다.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창의력이다. 물론 과학기술적 창의력을 말한다. 대부분의 과학자들 혹은 공학자들의 경우, 다른 학자들이 발표한 학술 논문들을 통해, 또는 학술회의 자료나 동료들 간의 상호 토론을 통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신만의 창의력을 발휘하게 된다.

물론 나도 그런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나의 창의력 (조금이라도 내게도 그런 창의력이 있다면...)을 키워 준 참된 뿌리는 과학자들의 그런 보편적인 과정이 아니라 좀 특별한 데 있지 않나 싶다. 내 창의력은 다름 아니라 문학 작품들을 읽으면서 발휘되는 상상력에 그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어 온 것 같다. 다소 유별나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35년간의 연구생활을 통해 경험적으로 얻은 결론이다. 연구실뿐만 아니라 내 집 거실에도 불박이 서가가 놓여 있다. 거기에 놓인 또 다른 2천여 권의 책들은 문학 서적이거나 일반 교양

서적이 대부분이다. 전공 서적은 한 권도 놓여있지 않다. 학생들은 물론이고 누군가가 나의 독서 습관을 묻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자기 계발서는 읽지 말 것. 고전 문학을 가까이 할 것." 특히 내가 가르치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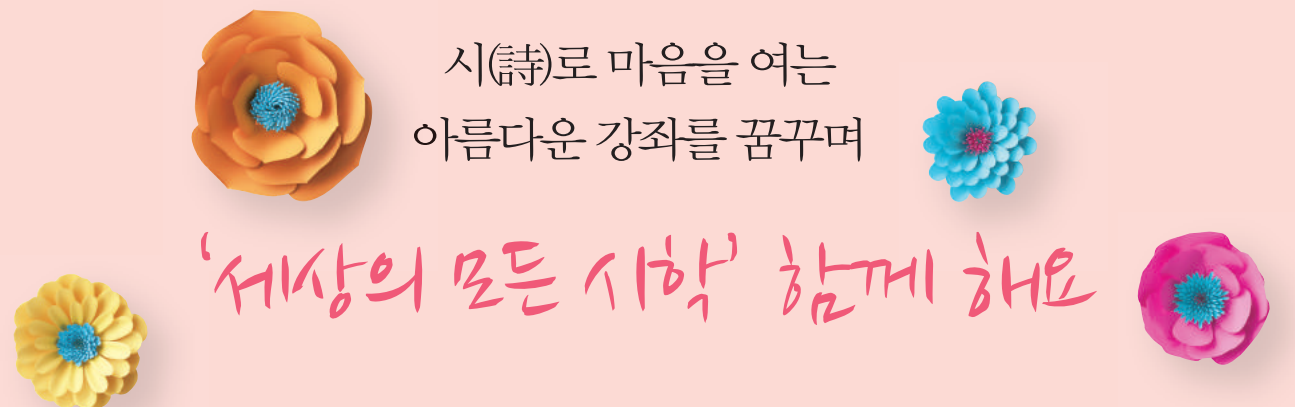
학생들과 면담할 때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있다. "학기 중에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할 것. 하지만 방학이 되면 전공 서적은 장식장에 치우고, 교양서적, 그중에 특히 고전 문학 책들을 읽으라."는 것이다. 적어도 내 경험으로는, 학창시절에 읽었던 고전 문학 책들 속에 숨은 길들을 통해

내 인생의 꽃을 피웠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과학자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내 서재에 꽂힌 전공 서적들은 강의 준비를 위해 가끔씩 찾아보는 정도이다. 하지만 고전 문학 책들이나 몇몇 교양서적들은 학창시절이나 이순(耳順)이 넘은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감동을 주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을 보여준다. 또한 과학자로서의 내 창의력을 섬뿍게 하는 우물이 되어 주고 있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서재에 꽂힌 책들을 채우고 끄집어내어 읽을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다. 이보다 더 참된 진리가 또 어디 있을까!

[교수의 서재]에서 교수님들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교수의 서재]는 분야별(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기술과학 등) 우리학교 교수님들의 서재를 통해 그 분의 독서법과 독서세계를 경험해보고, 서가에 꽂힌 책도 함께 만나보고자 기획된 코너입니다. 교수님에게 서재는 어떤 공간인지, 그리고 교수님의 독서와 인생이야기를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교수의 서재]에 칼럼을 써주시는 교수님께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함께 드립니다.
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이내 (A4 2장 정도) 문의 도서관 기획홍보팀 최민영(전화: 051-510-1810, 이메일: whitemy37@pusan.ac.kr)



도서관에서는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이용자 대상 및 관심사를 고려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시학>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여러 학술강좌 중 하나로, Poetica in PNU의 재능기부를 통해 진행되는 시학 관련 학술강좌이다. Poetica in PNU는 부산대학교 안의 시학/시적 소양을 양성하기 위해 구성된 교수들의 집합체로, 각 지역별 시학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는 모임이며, 지역이나 전공을 넘어선 시학의 연구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도서관은 2015년부터 Poetica in PNU와 함께 학기중 매달 1회씩 강좌를 진행하고 있으며, 딱딱한 학술강연 보다는 자유로운 방식의 강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었던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를 살펴보고, 기획의도 및 앞으로 진행될 강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어떻게 시작된 프로그램인가요?
 <세상의 모든 시학>은 Poetica in PNU에서 기획하고 도서관과 함께 공동주관으로 시작된 강좌이다. 부산대학교 안의 시학/시적 소양을 양성하기 위한 강좌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지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Poetica in PNU의 구성원은 부산대학교 교수진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교수들의 집합체로서의 성격은 지양하며, 구성원 내에서 감당할 수 없는 지역이나 시학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모든 강의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진행되며, 강의 방식은 전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재량에 맡겨진다. 더 나은 교육을 위해 기획된 <세상의 모든 시학>은 도서관의 후원 및 공동주관을 통하여 자료발간 및 홍보, 강의장소 등의 행정사항을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강의내용 및 강의진행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Poetica in PNU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그동안의 시학 강좌 살펴보기
 2017년 8월 현재까지 진행된 시학강좌는 총 17강으로, 2015년에 7강, 2016년에 7강, 2017년에 3강이 진행되었다. 2015년 3월 27일의 첫 강좌는 45명을 모집하는 첫 공고가 나간지 이틀만에 참가자 모집이 마감되고 대기자까지 접수할 정도로 시작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우리는 시대와 지역에 매이지 않는 시학의 보편성을 추구하되, 지금-여기의 역사성 또한 잊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한 상상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 강좌는 부산대학교 교수들의 재능기부와 도서관의 공동지원으로 운영됩니다... 대학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느니 세상 바깥에 나가면 인문학 강좌가 아주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대학에서 이런 강좌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학에 희망이 있겠는가! 그래서 한번 용기를 내봤고 오늘 그 첫 자리의 서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문학과 김승룡 교수)
 한문학과 김승룡 교수의 진행과 함께 시작된 첫 강좌는 불어교육과 김중기 교수의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현대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으며, 새벽별도서관의 오디오룸 좌석(49석)을 꽉 채우고 자리가 부족하여 뒷자리에 서서 듣는 학생들이 있을 정도로 성황리에 끝을 맺었다.

학기중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세상의 모든 시학>은 매년 강좌의 '대주제'를 정하고 강사진이 확정된 이후 각자 부주제를 자유롭게 정하여 강좌가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강좌 진행 첫해인 2015년에는 '나의 독시법(讀詩法)'이라는 대주제 아래 불시(佛詩), 독시(獨詩), 선시(禪詩), 영시(英詩), 일시(日詩), 한시(漢詩)의 순서로 강좌가 진행되었다. 정기강좌가 종료된 이후인 12월에는 특별강좌로 시인특강을 개설하였으며, 손택수 시인의 '은유와 사랑: 한국시 특강'이라는 주제로 2015년 강좌를 마무리하였다.

2016년의 강좌는 연속성을 위하여 8강으로 시작하였으며, 권택우 문학평론가의 '문화적 대응으로서의 한국 현대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시, 일상과 함께 울다(共鳴)'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부강좌가 2015년에 비해 다양하게 구성되었고, 2015년의 강좌가 주로 어문학 전공 교수들에 의해서 진행되었던 것과 달리 2016년에는 좀더 다양한 전공과 접목한 시학 강좌가 이루어졌다.

시와 전혀 관계가 없을 듯한 분야인 물리교육과 김상욱 교수의 강좌(제9강 '우주의 시')나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이상재 교수의 강좌(제12강 '시는 감동[+]이다')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상욱 교수는 F=ma 라는 물리법칙을 시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양한 물리학의 법칙과 시를 접목하여 색다른 강연을 펼쳤다.



<세상의 모든 시학> 강좌 진행자 김승룡 교수(한문학과)



제1강 '보들레르의 <악의 꽃>과 현대시' 강연 현장



제9강 '우주의 시' 강연 현장



2017년, 올해의 시학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2017년의 <세상의 모든 시학> 대주제는 '도시와 포엠: 포엠시티를 꿈꾸다'로, 도시와 시학을 주제로 하고 있다. 나라별로 유명한 도시와 시인을 접목시켜 새로운 시각으로 시학을 살펴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파리(보들레르), 뮌헨(릴케), 송도(황진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별 전공 교수들의 강연이 진행되었다.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2017년의 시학 강좌는 각 지역별 시학 전공 교수들이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9월부터 통영(백석), 교토(이즈미시키키부), 상트 뻐페르 부르크(푸슈킨)의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정기강좌가 종료되는 12월에는 시인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세상의 모든 시학> 강의 자료는 책자로 발간되어 그동안의 강연을 텍스트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도서관 유튜브에 접속하면 그동안의 강연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어,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느껴볼 수도 있다. Poetica in PNU에서는 <세상의 모든 시학>을 참여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아름다운 강좌'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로부터 사랑받는 강좌'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옛날의 훌륭한 지식강좌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졌으며, 학교 안에서 소박한 강좌를 시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좀더 많은 학생들이 우수한 강좌를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한 학술강좌를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세상의 모든 시학>은 학기중 매월 넷째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새벽별도서관(구 제2도서관) 1층 오디오룸에서 진행됩니다. 강좌의 참가신청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진행하며, 사전신청 없이도 현장에서 바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중앙도서관 3층 기획홍보팀
 051-510-1810

여행의 취향, 여행의 방식

여러분은 방학 동안
다들 무엇을 하며 지내셨나요?
지난 여름에 세운 새로운 계획들은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졌나요?
방학이 새로운 학기를 위한

‘휴식’이라면
다가오는 새 학기는
다음 방학을 위한
충전이 아닐까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세운 계획들이
새로운 학기에는
활력소가 되어 줄 거예요.
여러분은 방학동안
어떤 여행을 꿈꾸며
휴식을 보냈나요?
휴식? 관광? 쇼핑? 먹방?
일상을 떠나 해외를
다녀오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낯섬을
맛이하는 것이
여행이란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래요.
여행관련 책을
소개해드릴게요

내가 ‘식객’이 되는 시간,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

(허영만, 이호준 지음)
#여행 #식객 #먹방 #일본 #맛집



맛 좀 아는 ‘식객’의 침샘 자극 일본 이야기,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쉽게 고려하는 나라인 일본. 두시간 남짓이면 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인정하는 일본 특유의 매력도 있기 때문이기도 해요. 특히나 일본 하면 유명한 것은 각종 맛있는 음식!
「이토록 맛있는 일본이라면」은 ‘식객’의 대작가 허영만이 2년간 50회에 달하는 일본 식도락 여행을 통해 오키나와부터 미야자카까지 한국에 알려지지 않은 맛의 고장을 찾아 떠났습니다. ‘식객’의 두 남자가 현지인들도 극찬하는 맛집을 전격 공개한일본을 누비며 찾은 맛집에 관한 정보를 담은 책이에요. 장수 마을 오키나와,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지는 곳 미에, 웅대한 대 자연의 파노라마 도야마, 일본에서 가장 일본스러운 곳 이시카와, 소설 ‘설국’의 배경이 된 니카타 등 지금까지 널리 알려진 일본의 맛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짜’ 일본 맛집을 소개합니다.
뜨내기들의 식당이 아닌, 큰 도시의 프랜차이즈가 아닌 일본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진짜 식당”들의 정보를 보고 싶노라면 어느새 겨울 일본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915.304 허64 0

여행이 치유가 되는 이유. 책을 통해 떠나는 여행, 러브 앤 프리

(다카하시 아유무 지음/ 양윤옥 옮김)
#여행 #힐링 #로맨스 #탐험



여느 여행작가들이 그렇듯 ‘어느 날 불현듯’ 여행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다카하시 아유무의 방랑노트예요.

하지만 다른 여행작가들의 포토에세이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함과 잘난 척 하지 않는 솔직한 자유로움으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책입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사진이 아닌 톡톡 찍은 듯한 사진과 마음을 울리는 짧고 강한 글귀로 감성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벽에 부딪힌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 스스로의 존재를 상실한 사람들에게 답과 용기를 주는 다카하시 아유무의 자유 안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되찾아줄 거예요.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단행본
HDM 910.4 고16 2한2

이제껏 없었던 여행 에세이, 내 방 여행하는 법

(그자비에 드 메스트르 지음 / 장석훈 옮김)
#여행 #방콕 #집순이 #청춘



반복되는 일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싶은데 선뜻 움직일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는 별 것 아닌 듯해도 치명적이다. 나날이 오르는 물가에 지갑은 가벼워지고, 늘 피곤에 빠진 몸으로 어디를 갈까 가능하자면 상상만으로 이미 지쳐버리기 일쑤다. 이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는 이들에게 흔히 가까이에서 먼저 여행을 시작해 보라는 조언을 건넨다. 가령, 동네 같은 곳 말이다. 그런데 그걸 아예 집 안에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금지된 결투를 벌였다가 42일간 가택 연금형을 받은 작가. 집 안에서만 보낼 수 있는 42일 동안 그는 집안을 “여행”하기로 결심합니다. 여행은 어딘가 먼 곳으로 가는 것만이 여행이 아니라 낯선 것을 발견하는 것, 그 자체가 여행이라고 전하는 저자의 시선이 무척 신선해요.
이 신선한 시선은 무려 1794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
새로운 발견과 낯섬을 맞이하는 설레임에 목마른 청춘을 위한 책.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48.8 M231v한

절대 어릴 때의 낭만을 잃지 말자 우물밖 여고생

(술구 지음)
#여행 #청춘 #이사 #만남



「우물밖 여고생」은 평생 이사 한 번 안 해본 열여덟 살의 여고생인 술구(신술기)의 달달하고 말랑말랑한 책이에요. 혼자서 모은 돈으로 혼자서 세상 밖을 향해 걸어간 여행을 담은 에세이예요.
여고생답게 발랄하면서도 성숙함이 묻어나는 글과 사진으로 가득합니다. 공부에 시달리며 학교와 학원만을 오가는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산소 같은 책, 내 아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부모님이 읽으면 좋을 책, 고단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춘들에게 무한 공감과 힐링의 시간을 안겨주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책장을 넘기는 동안 행복한 엄마미소가 입가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성인이 아니니 부모님의 허락하에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틈만 나면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아직 성인이 안 된 여고생의 우물 밖 세상 이야기. 인생의 첫 비행기부터 시작해 미성년자이기에 느낄 수 있었던 모든 “처음”과의 만남이 글을 읽는 사람들을 동심으로 되돌려놓는 것 같이 만들어요.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11.8 신58 0

여행 문학의 대가, 그가 그려낸 세상의 끝

(폴 서루 지음/이미애 옮김)
#여행 #전세계 #열다섯편의 이야기



일본의 유명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일본어로 번역해 출간한 책으로 유명해진 책이에요. 런던, 파리, 독일, 아프리카, 코르시카 섬, 푸에르토리코 등 세계 곳곳을 배경으로 한 열다섯 편의 이야기가 담겨졌어요.

깊은 사유와 예리한 통찰로 그려낸 모국에서 멀리 떠나 있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심리적으로 ‘세상의 끝’에 놓여 있는,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행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외로움과 소외감, 호기심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공존을 담아낸 책이에요. ‘세상의 끝’에 놓인 인물들의 이야기를 깊은 사유와 예리한 통찰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소장정보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단행본
LDM 823.914 T412w한

열람실 이용통계로 알아본 도서관의 학습공간 200%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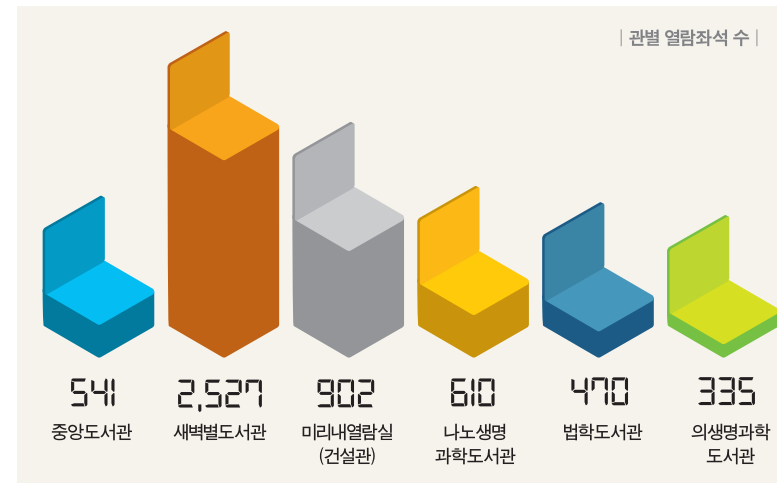
도서관은 자료를 소장하는 자료실과 이용자들이 자료를 열람하거나 공부하는 공간인 열람실로 구성된다. 특히 학부생이라면 자료실보다는 열람실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며, 많은 대학도서관에서 자료를 구입하고 비치하는 것만큼이나 열람실 좌석을 늘리고 열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도 새벽별도서관(구 제2도서관)의 열람실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도서관(구 제1도서관) 자료실 내의 열람공간, 건설관의 미래내열람실 등 열람석의 확보와 열람실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새벽별도서관에서는 일반열람실 외에도 노트북열람실, 대학원열람실 등 다양한 종류의 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재직 중인 교직원 등 전체 구성원은 열람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열람실의 현황 및 열람실별 이용통계 등 열람실에 관련된 통계를 통해 도서관의 학습공간을 200%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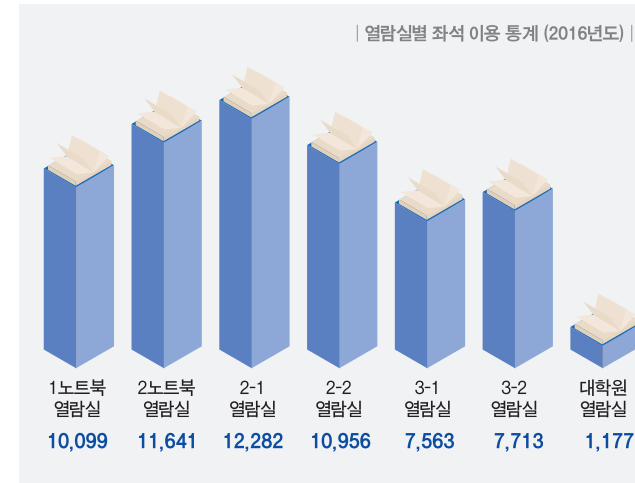
관별 열람 좌석 수

2017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총 열람 좌석수는 5,385석이다. 중앙도서관과 새벽별도서관을 포함한 캠퍼스별 각 분관의 열람 좌석수를 모두 더한 숫자로, 중앙도서관의 북카페 좌석이나 이용교육실, 서고 내의 소파는 열람좌석 수에서 제외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의 9,364석에 비하면 적은 숫자지만, 경북대학교 도서관의 열람 좌석수 5,095석과는 비슷한 좌석수를 보이며 부산 내의 대학도서관 중 부경대학교(4,405석)나 동아대학교(2,997석)과 비교하면 확연히 많은 좌석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서관별로 좌석수를 살펴보면, 1층을 제외한 전층이 열람실로 구성되어 있는 새벽별도서관의 열람 좌석수가 2,527석으로 가장 많으며, 건설관 3-4층의 미래내열람실이 902석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전층 자료실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도서관의 경우 구·신관쪽 창가쪽으로 있는 열람 좌석과 구관에 위치한 열람 좌석수 등을 합쳐 541석이 있으며, 법학도서관에도 단행본실과 연강물실, 과제도서실의 열람석을 합쳐 470석의 좌석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 외에도 밀양캠퍼스의 나노생명과학도서관, 양산캠퍼스의 의생명과학도서관에 분관 이용자들을 위한 열람 좌석이 마련되어 있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자료를 열람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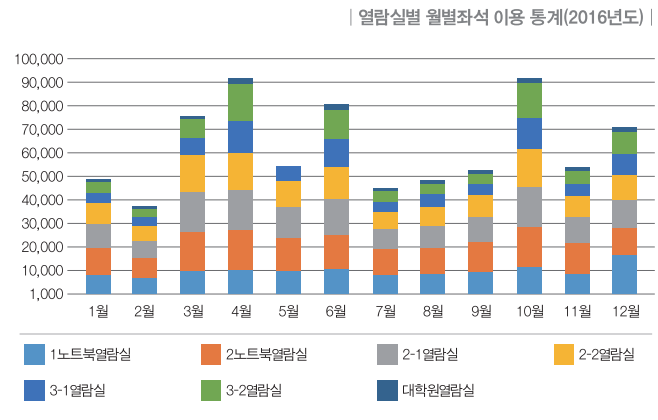
2016년도 열람실별 좌석 이용 통계

오른쪽 도표는 새벽별도서관의 열람실별 좌석 이용 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전좌석 자유석으로 운영하는 2층의 1열람실을 제외한 나머지 열람실의 이용 통계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인의 중복 이용수를 포함한 통계이다. 통계를 살펴보면 칸막이로 구성된 3층의 2열람실이 23,238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층의 3열람실이 15,276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열람실은 이용자층이 학부생이 아닌 대학원생 이상으로, 좌석수 자체도 적은데다 이용자층이 정해져 있어 이용통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2층과 4층에 각각 1개씩 있는 노트북열람실은 각각 10,099명, 11,643명이 이용하며 높은 이용통계를 나타냈는데, 특히 4층의 노트북열람실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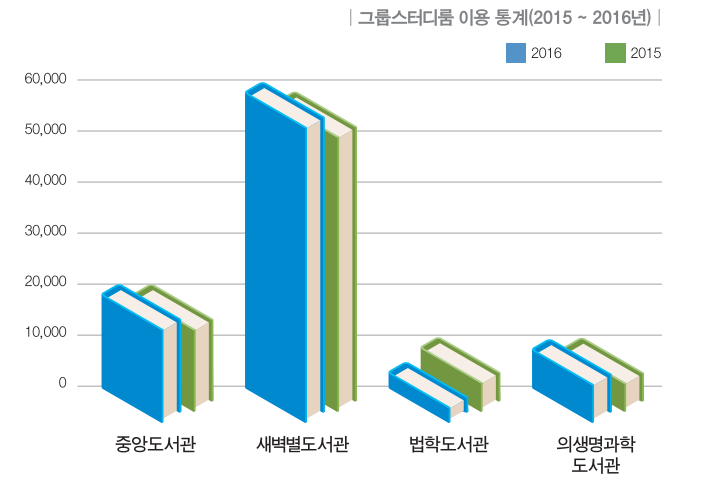
2016년도 열람실별 월별 좌석 이용 통계

아래는 각 열람실별 좌석 이용 통계를 월별로 나타낸 도표이다. 학기 중과 방학 중의 이용통계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름방학에 비해서는 겨울방학인 1,2월의 이용률이 확연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월은 전열람실의 이용통계가 37,227명으로 1월이나 7,8월의 통계가 45,000명에서 48,000명에 달하는 것에 비해 약 80%의 낮은 이용률을 보인다. 학기 중에는 특히 4월과 10월의 이용률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각 학기의 중간고사기간에 시험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도서관 열람실로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전월의 이용통계 평균은 약 63,404명으로 여기에는 동일인의 중복 이용수도 모두 포함된 것이다. 여기에 새벽별도서관의 1열람실 이용통계가 빠진 것을 고려하면, 전체 이용 통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룹스터디룸 이용 통계

도서관에는 재학생들의 학습·연구와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도서관에 스터디룸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캠퍼스의 중앙도서관에 4개, 새벽별도서관에 8개, 법학도서관에 5개의 그룹스터디룸이 있으며, 양산캠퍼스의 의생명과학도서관에는 4개의 그룹스터디룸이 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의 그룹스터디룸 이용통계를 나타낸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새벽별도서관의 그룹스터디룸 이용통계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는 새벽별도서관의 그룹스터디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벽별도서관의 열람실을 이용하면서 그룹스터디룸을 같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법학도서관과 의생명과학도서관은 해당 단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 이용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중앙도서관이나 새벽별도서관의 이용통계보다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2015년도의 스터디룸 이용률과 비교해서 보면, 2016년도의 이용률이 전년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전년도보다 낮아진 통계의 법학도서관의 경우는 웹으로 신청을 받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의 열람실과 스터디룸은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도서관에서는 쾌적한 열람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열람실을 이용하기 위한 열람좌석배정시스템의 이용이나 스터디룸을 이용하기 위한 온라인 사전예약 등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편리하게 열람실 좌석배정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오픈하기도 하였다. 도서관의 열람실과 스터디룸의 이용 관련 정보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중 불편하거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은 언제든지 도서관의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앞으로도 열람실의 환경개선 및 학습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2017년 전국민의 마음

사로잡은 트렌드는

단연 옴로(YOLO)입니다.

옴로란 'You Only Live Once'의

줄임말로 '당신의 인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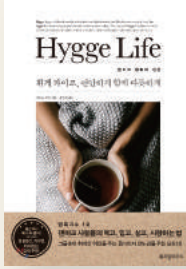
한번뿐입니다'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후회 없이 오늘을 즐기고

멋지게 살아가는 옴로족들에 대한,

혹은 옴로를 꿈꾸는 사람을 위한

책을 소개합니다.



휘게 라이프, 편안하게 함께 따뜻하게

마이크 비킹 지음 | 정여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6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158.1 W6631한)

덴마크 행복의 원천 휘게 라이프 스타일 엿보기

저자는 이 책에 휘게의 유래와 가치, 덴마크 사람들이 휘게를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휘게 한 음식에는 무엇이 있는지, 1년 열두 달 휘게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풀어놓았다. 그는 이 내용들을 통해 누구나 휘게를 실천할 수 있으며, 휘게를 통해 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여름휴가에서, 또는 운이 좋으면 몇 번 더 어느 이국적인 공간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휘게는 조금 더 나아가 매일의 최선을 경험하는 데 있다.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인들이 일상을 빛나게 만드는 비결인 ‘휘게’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세상 어디에서라도 당장 행복에 다다를 수 있게 될 것이다.



미안하지만 미친 건 아니에요

미미시스터즈 지음 | 달 | 2017
(중앙도서관 3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8 미390)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미친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안 하고 싶면 안 되는, 생각과 욕망과 힘이 도무지 꺼지질 않는, 그런 일이 있다. 우리의 언니 혹은 우리의 누님 '미미시스터즈'에게 안 하고 못 배기는 일은 바로 '미미'로 살아가는 일이다. 붉은 립스틱을 칠해 바르고, 눈빛이 비쳐지 않는 선글라스를 쓰고, 절대 표정을 드러내지도 관객의 호응에도 반응하지 않던 미미시스터즈가 이제는 진정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 진정 미미로 살아가기 위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미미'로 살면서 동시에 '나'로 사는 이야기, 음악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등 때로는 살갑게 다가오는 그녀들의 수다에 부담 없이 동참해보길 바란다. 한번뿐인 인생,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며 신나게 살아보려는 옴로(You Only Live Once)의 모습을 유쾌하게 만날 수 있는 책이다.



내 인생에게 묻고 싶은 한 가지

캔 콜먼 지음 | 김정환 옮김 | 홍익출판사 | 2017
(중앙도서관 4층 과학기술자료관 SDM 612.6 C6920한A)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진정한 옴로

누구나 자기 자신 안에 답을 가지고 있다. 무능하다는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서 잘린 한 진행자에게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처럼 막막한 미래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로 가는 길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현대인이 안고 있는 저마다의 고민에 대해, 각 아이템마다 가장 훌륭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 질문을 던지고 간단하고 명쾌한 지름길을 안내받자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당장 아이디어를 실천했고, 얼마 뒤 그의 블로그는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팟캐스트 1위에 올랐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대인들에게 '살아지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각오를 심어주었다. 옴로의 시작은 나 자신을 아는 것부터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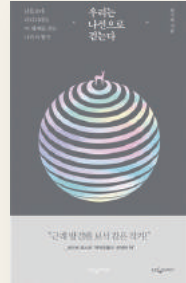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

로버트 뉴턴 팩 지음 | 김옥수 옮김 | 사계절출판사 | 2017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23.914 P367d한A)

사계절출판사 창립 35주년 기념 에디션, 옴로옴로 시리즈

한번뿐인 삶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열망하는 독자들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시 '문학'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사계절출판사의 1318문고 20주년 에디션 시리즈. 끝이 없을 듯한 좌절과 무력감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위로, 혹독한 현실에서 뛰쳐나올 용기, 씩씩한 삶에도 아직은 존재하는 사랑과 유머... 옴로옴로에는 웃음이란 눈물이든, 오직 문학만이 가진 치유와 공감의 힘이 독자들의 삶을 진정 옴로옴로하게 하리라는 굳은 믿음이 담겨 있다. 자연과 인간,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소설 '돼지가 한 마리도 죽지 않던 날'은 작가 로버트 뉴턴 팩이 열두세 살이었던 시절의 확대경을 통해, 동심의 세계에서 어른으로 막 눈뜨가는 과정을 한 쪽의 진전하고 투명한 수채화처럼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우리는 나선으로 걷는다

한수희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17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1.8 한5702)

지금, 과한 소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옴로 라이프를 보여주는 책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 불안하기만 했던 이십대, 나이는 먹었는데 이론 건 없다는 자책이 들었던 삼십대. 이 모든 나이를 지나 이제 마흔을 바라보게 된 작가는, 돌아켜보니 내게 없는 무엇을 얻기 위해 안달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한다. 작가가 이런 삶의 자세를 갖게 된 건 책과 영화 덕분이다. 그녀에게도 인생이 막막한 순간이 때때로 닥친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책과 영화를 파고들었다. 그때마다 몰랐던 엄청난 사실이 아니라, 잊고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다시금 깨닫는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용기를 얻는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수희 작가에게 위로와 공감을 줬던 책과 영화 리스트가 엄선되어 뽐혀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책과 영화 리스트들이 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빛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다. 큰 돈 들이지 않고 사치부리지 않고 일상에서 가능한 소박한 옴로의 방법을 안내해주는 책이다.



인투 더 와일드

존 크라카우어 지음 | 이순영 옮김 | 바오밥 | 2010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917.98045 K891한)

열정적인 한 청년이 남긴 마지막 여행의 기록

1992년 8월, 알래스카 오지의 버려진 버스 안에서 한 청년의 시체가 발견된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을 우등으로 졸업한 청년은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알래스카의 야생으로 향했고, 몇 달 후에 싸늘하게 돌아온 것이다. 등반기자 산악문학 작가인 존 크라카우어는 이 사건을 기사로 완성한 뒤에도 청년의 삶과 죽음에 이끌려 이후 1년 넘게 취재를 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인투 더 와일드"는 청년 크리스토퍼 존슨 매캔들리스의 마지막 여행에서 시작해 그의 가족의 친구, 그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가 읽은 책들, 일기와 편지, 메모 등을 들여다보며 열정적이고 솔직했던 한 젊은이의 영혼을 기록하고 있다.



여행하는 인간

문묘한 지음 | 해냄출판사 | 2016
(중앙도서관 3층 인문사회자료관 HDM 150.2 문660)

한번쯤은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한 여행을 떠나보자

'여행하는 인간(Homo Viator)'이란 말을 영어로 해석하면 '그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뜻한다. 삶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보면 진정한 여행자는 '평생 동안 자기 길을 찾아 길 위에 있는 사람'이다. 이처럼 여행이란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여행을 통해 내 삶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 책은 생생한 삶의 에너지로 현재를 충만하게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여행처럼 여행을 일상처럼 살아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들려준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독자에게 언제 더 바랄 것 없을 만큼 충만한 순간을 경험했는지, 지금의 삶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간다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 그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답을 내릴 수 없다면 언젠가는 긴 여행을 떠나라고 말한다.

나이들을 배우다

마거릿 크룩생크 지음 | 이경미 옮김 | 동녘 | 2016
(중앙도서관 3층 문학예술자료관 HDM 305.26 C95513한)

오늘 하루만 사는 옴로는 NO! 미래도 생각하는 옴로

왜 우리는 나이 들을 두려워하는가? 우리 시대의 늙음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관해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책이다. 이 책은 여성학이나 노년학에서 '늙음'이 '여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포착하지 못했다는 확신에서 시작되었다. 저자는 지금까지 별개로 다루어지던 것들, 이를테면 건강, 정치학, 인문학, 페미니스트 노년학, 문화 분석까지 같이 묶어보려고 시도했다. 동시에 여성 노학에서 중요한 주제들, 즉 주거, 교통, 메디케어, 양로원 등도 주목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늙음을 배운다'는 것은, 나이 들이 이 시대, 이 공간의 산물이며, 생물학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과 사회제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낙관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일련의 삶의 경험임을 인식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경험을 지배하는 노화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깨고 나이들을 여러측면에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댄스 댄스 댄스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 유유정 옮김 | 문학사상 | 2009
(중앙도서관 2층 문학예술자료관 LDM 813.36 촌51c한 1)

댄스플로어에 나갔으면 춤을 추어라 잘 추든 못 추든 상관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적 통제 속에 얽매어 살아가게 마련인 고도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 자기 나름대로의 스텝을 밟아나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이 작품은, 오늘을 사는 젊은 세대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 사랑과 섹스, 실존과 고독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깊이 있고 예리하게 탐색하고 있다. 나아가 기존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자원이 신격화된 현대사회의 병폐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출구를 찾아 나선 이 소설은 그 어느 작품보다도 하루키의 작가로서의 깊은 고뇌와 진지함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숨 기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진정으로 '현실'을 산다는 것, 오늘을 충분히 의미 있게 즐기고 싶어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스스로 묻고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당신의 예상을 뒤엎는 반전영화의 매력 속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말을 뒤엎고 생각지도 못한 전개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화들은 결과를 알고 보면 재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화 제작사 등에서도 반전영화를 홍보할 때는 스포금지 입단속을 단단히 시키곤 하죠. 대신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보면 결말을 암시하는 장면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재미가 있지요. 이번호에서는 신선한 결말로 반전의 충격을 준 영화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의 영화는 중앙·새벽별도서관 1층 iCOMMONS 내 미디어룸에서 언제든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터 아일랜드

개요 스릴러 | 138분 | 2010.3.
감독 마틴 스콜세지
출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테디 다니엘스 역), 마크 러팔로(척 아올 역) 등
내용 보스턴 서터 아일랜드의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실상가상 폭풍이 불어닥쳐 테디와 척이 섬에 고립되게 되면서 점점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줄평 트라우마의 감옥 (최광희 3M휴먼 기자)



성난 변호사

개요 범죄/액션 | 117분 | 2015.10.
감독 허종호
출연 이선균(변호성 역), 김고은(진선민 역), 임원희(박 사무장 역) 등
내용 시체도 증거도 없는 신촌 여대생 살인사건의 승소를 확신한 순간, 시작된 반전! 자존심 구긴 에이스 변호사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된다.
수상 반전보다 더 큰 한방, 이선균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



더 바디

개요 스릴러 | 111분 | 2014.5.
감독 오리올 파울로
출연 벨렌 루에다(마이카 비아베데 역), 오라 가리도(카를라 역) 등
내용 미묘의 재능가 마이크를 아내로 둔 알렉스는 새로운 연인과 함께하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기에 이르는데, 완벽했던 살인사건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반전이 드러난다!
한줄평 차게 식힌 복수한점시 추가오 (김혜리 씨네21 기자)



프레스티지

개요 스릴러/SF | 130분 | 2006.11.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출연 휴 잭맨(루퍼트 엔지어 역), 크리스찬 베일(알프레드 보든 역) 등
내용 1900년대 말 상류층의 미술사와 고아로 자란 천재 미술사들의 마술과 그들의 관계,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수상 이 정도 반전이라면 충분히 흥미롭다. (이동진 씨네21 기자)



베스트 오퍼

개요 범죄/드라마 | 131분 | 2014.6.
감독 쥘세페 토르나토레
출연 제프리 러쉬(버질 울드먼 역), 짐 스테이거스(로버트 역) 등
내용 최고가로 미술품을 낙찰시키는 세기의 경매사이자 완벽한 감정인 울드먼. 한 여인으로부터 감정의뢰를 받으면서 예상치 못한 인생의 변화를 맞이하는데...
한줄평 고전적 터치가 감쪽같은 (이용철 씨네21 기자)



내부자들

개요 범죄/드라마 | 130분 | 2015.11.
감독 우민호
출연 이병헌(안상구 역), 조승우(우장훈 역), 백윤식(이강희 역) 등
내용 복수를 계획하는 정치강파와 성공하고 싶은 무족보 검사, 비자금 스캔들을 덮어야 하는 대통령 후보와 재벌, 그들의 설계자 중 살아남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한줄평 세상 돌아가는 검은 이치 (김형석 영화 저널리스트)

그 외 반전의 충격이 있는 영화

장르 | 러닝타임 | 개봉년월 | 감독

아이덴티티

스릴러 | 90분 | 2003.10. | 제임스 맨골드

경성학교 : 사라진 소녀들

미스터리 | 99분 | 2015.6. | 이해영

빌리지

스릴러 | 106분 | 2004.9. | M.나이트 샤말란

오피스 : 천사의 비밀

공포/미스터리 | 123분 | 2009.8. | 자음 콜렛 세라

도서관 공식

페이스북을 방문하고  를 눌러주세요



부산대학교 도서관의 공식 페이스북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도서관 페이스북에 접속하시면 쉽고 빠르게
도서관의 새로운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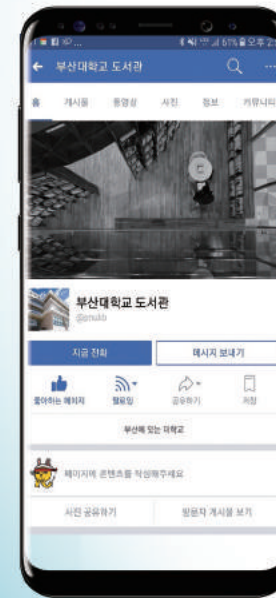
페이스북 바로가기

주소창에 도서관 페이스북 주소를 직접 입력해주세요.
<https://www.facebook.com/pnulib/>

02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연결

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f 를 눌러주세요!
도서관 페이스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도서관 페이스북 이용 중 불편한 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도서관 홈페이지 게시판(Board) 또는 댓글남기기를 통해 의견을 주세요.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시선집중

2017년도 도서관 정보학술대회 개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대학도서관간 정보교류 확대 및 대학연합체제에 대한 도서관의 선제적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도 도서관 정보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부산대학교 도서관이 주관하고 부경지역국립대학도서관협의회와 경상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 부산대학교 외국학술지지원센터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21세기 대학도서관,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도서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정보학술대회에는 바른정당 김세연 국회의원이 특강 발표자로 참여하여 ‘대학도서관 진흥법 제정의 의미와 발전방향’에 대해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외에도 교육부 학술진흥과 이성림 사무관의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사업과 대학도서관 진단평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장금연 부장의 ‘대학도서관의 최근 동향’이라는 특강이 있었다. 부울경 지역의 대학도서관 중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번 도서관 정보학술대회를 통해 실무자들 간의 정보교류 및 원활한 업무 협력이 가능한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대학 도서관 현안에 대해 공동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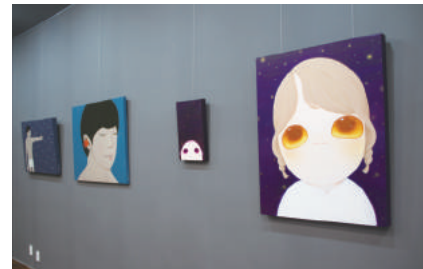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10

중앙도서관 앞 남해군 군목(비자나무) 기념식수 행사



지난 6월 2일(금), 중앙도서관(구 제1도서관) 앞 뜰 화단에 비자나무를 심는 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와 남해군의 우호 협력을 기념하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해군의 군목(郡木)인 비자나무 3그루에 대한 기념식수 행사로, 전호환 총장과 주철안 교육부총장, 박영일 남해군수, 이상금 도서관장 등이 참가하였다. 부산대와 남해군이 맺은 협약은 「부산대학교-경상남도 남해군 상호발전과 우호협력을 위한 협약」으로, 이를 통해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교육·학술·문화 등 각 분야의 상호 발전을 위한 인적·물적 교류 협력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하고, 평생교육 활성화와 의료건강 증진, 학술·문화 행사 공동개최 및 상호초청 등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전호환 총장은 “부산대학교가 지역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데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과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지역 학생들을 비롯한 군민들을 위해 남해군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서관 예술작품 전시회, ‘조우(遭遇)’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대학원생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예술작품 전시회 “조우(遭遇)”가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50일간 중앙도서관(구 제1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 전시코너에서 진행되었다. 부산대학교 내의 단과대학이나 학과, 동아리 등과의 협업을 통하여 부산대학교에서 소장하거나 창작하는 작품을 홍보하고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시작된 2017년도 예술작품 전시회는 이용자들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예술작품을 전시하여 도서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된다. 다양한 예술작품 전시를 통하여 대학 내 구성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이번 전시회는 도서관의 공간을 활용하고 전시회의 예산을 절감하는 두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7월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회 “조우(遭遇)”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의 대학원생 작가 9명이

Special Focus

예술을 통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예술과 개인’으로의 만남을 주제로 기획한 것으로 전시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도서관 1층 복합문화공간에 방문하면 작가들의 이름과 포스터를 배경으로 한 엽서를 확인할 수 있다. 11월에는 한국화를 전공한 대학원생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한국화 전시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전시회 관람은 교내 구성원 및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도서관의 개관시간과 동일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 도서관 기획홍보팀 051-510-1820

사진 공모전 ‘부산대,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라’ 개최



부산대학교 도서관에서는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 중 하나인 “책 읽는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부산대,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찾아라’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 대학에서의 일상 생활 모습과 대학을 배경으로 한 모든 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학부 재학생(휴학생 제외)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도서관 인문사회팀에서는 이번 사진 공모전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에서 나만의 휴식, 문화 및 학습하는 공간을 친구들과 공유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행사 진행 의의를 밝혔다. 사진은 9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메일(photo@library.pusan.ac.kr)을 통해 접수받으며, 11월 중에 최종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등(1명)과 2등(2명)에게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상금과 총장표창이 수여되며, 그 외에도 3등(5명), 가작(20명)에게 각 10만원과 5만원, 그리고 도서관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사진공모전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는 사진전시회를 개최하며,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된다.

문의 | 도서관 인문사회팀 051-510-1307

| 도서관 후원 |



고맙습니다. 기증해 주신 자료는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기증자료 제막행사



그림에 대해 설명하는 미술학과 김양목 명예교수



왼쪽부터 ‘차사발’ 2점 기증자 김용환 철학과 교수, 이상금 도서관장, 현광남 콜렉셔널, 김양목 미술학과 명예교수 (‘차사발’ 작가, 1점 기증)

정년퇴임 기념 철학과 김용환 교수 및 작가 김양목 교수 그림 기증, ‘차사발’ 3점과 ‘해바라기’ 1점, 새벽별 도서관에서 전시

지난 8월 18일 금요일, 새벽별도서관에서는 ‘차사발’ 3점과 ‘해바라기’ 1점의 그림 제막식이 진행되었다. 이 그림들은 철학과 김용환 교수와 미술학과 김양목 명예교수가 기증한 그림으로, 이달 말 정년퇴임을 앞둔 철학과 김용환 교수가 후학들에게 삶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고자 미술학과 김양목 교수의 ‘차사발’ 작품 2점을 구입·기증하고, 여기에 김용환 교수의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해바라기’(성백주 작가, 1997년 작) 1점까지 보태 모두 3점을 기증한 것이다. 여기에 ‘차사발’의 작가인 김양목 명예교수도 김용환 교수의 뜻에 동참하면서 자신의 차사발 작품을 1점 더 보태어 모두 4점의 작품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김용환 교수는 실제로 도서관을 방문해보니 그림이나 서예 등의 미술작품이 잘 보존되어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새벽별도서관으로 자료전시공간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사발’ 3점은 모두 2016년에 제작된 작품(각 30호)으로, 가격을 매기자면 1점당 천만원(호당 35만원)이 넘는 작품이다. ‘차사발’ 3점의 작가인 김양목 명예교수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및 (사)한국미술협회 부산지회장을 역임한 작가로, 현재는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명예교수와 부산미술협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금 도서관장은 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책뿐만 아니라 가치있는 그림을 학생들이 많이 접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이번 미술작품 기증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문의 : 도서관 행정지원팀 051-510-1830



도서관에 자료기증을 원하세요?

여러분께서 기증해주시는 책은 모두의 자산이 되며, 도서관 이용자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됩니다.

도서관 자료개발팀 051-510-7600
도서관 고문헌자료실 051-510-1824(고문헌 관련)
도서관 행정지원팀 051-510-1830(예술작품 관련)